

# 구조조정 기업 44% 정상화 실패

청산·법정관리 등 진행  
투입자금 약 72조 중  
회수율 22%·56조 손실  
절반은 산업은행 발성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의 절반 가  
까이는 정상화 과정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금융  
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르면 2008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14개  
주채권 은행이 대기업 82개, 중소기업  
103개 등 총 184개의 회사에 대해 자  
율협약 및 워크아웃을 진행했다.

하지만 워크아웃을 정상적으로 졸업  
한 기업(M&A 포함)은 50곳으로 27%  
에 그쳤다. 절반에 가까운 81개(44%)  
기업은 파산, 법정관리, MOU약정 불  
이행 등으로 정상화에 실패했다. 나  
머지 54곳(29%)은 워크아웃 등 구조  
조정이 진행 중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103곳 중  
절반 이상인 55곳이 구조조정에 실패  
했다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채권은행이  
이들 기업에 투입한 자금은 모두 71  
조8402억원이었다. 184개 기업의 구조  
조정 직전 익스포저 금액이 46조608  
억원이었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  
로 지원한 자금도 25조7794억원에 달  
했다.

## 갤럭시노트7 10월부터 일반 개통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이 다음달 1일  
부터 정상적으로 판매된다

갤럭시노트7은 애초 28일부터 일반  
판매를 시작하려했지만 신제품 교환  
율을 고려해 다음달 1일부터 판매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갤럭시노트7 사전 예약  
구입자 중 아직 제품을 받지 못한 고  
객의 판매 재개일도 기존 28일에서  
28일로 이를 미뤄졌다.

기존 고객들의 갤럭시노트7 신제품  
교환은 이달까지는 전국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  
는 160여 개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내  
디지털프라자에서만 교환할 수 있다.

갤럭시노트7 신제품으로 바꾼 고객  
은 다음달 휴대폰 요금청구서에서  
'통신비 지원' 명목으로 3만원을 차  
감받는다.

갤럭시노트7을 반납하고 삼성전자의  
다른 스마트폰으로 교환한 이용자  
도 3만원을 면제받는다. /뉴시스



소프트웨어 전문 전시회 개최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유일 소프트웨어(SW) 전문 전시회인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2016'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그러나 회수금액은 약 22%에 해당  
하는 15조8043억원에 불과했다. 향후  
기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회수금  
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6월 말 기준  
으로는 최대 56조359억원의 평가 손  
실이 예상된다.

전체 손실 규모의 절반에 해당하는  
28조7355억원은 산은이 관리하는 기  
업에서 발생했다. 이어 국민 5조 8129  
억원, 우리 4조1670억원, 신한 4조947  
억원, 수출입 3조8331억원, 농협 3조

4676억원, KEB하나 3조2959억원, 기은  
1조3880억원 순이었다.

구조조정 개시 이후 투입한 추가 지  
원 자금에 대한 회수율도 높지 않았  
다. 국민은행과 수출입은행, 대구은  
행, SC제일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은 자금지원대비 회수율이 100% 이  
하였다.

특히 구조조정 업무를 주관하는 산  
은은 60개 기업에 13조2912억원을 추  
가로 투입하고도 회수금액은 4조736

억원에 불과했다. 추가 투입한 금액  
의 31%만 회수한 셈이다.

9001억원을 투입해 2563억원을 거둔  
신한은행은 회수율이 28%로 추가자  
금을 투입한 은행들 중 최하위였다.

채이배 의원은 "국책은행과 정부의  
그릇된 판단으로 기업의 부실을 더  
키우고 국민경제의 부담을 가져오고  
있다"며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역할  
과 역할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뉴시스

## 8월 수입물량 전년대비 7.5%↑

화학제품·일반기계 영향... 수입금액지수 0.7% 상승

우리나라 수입물량지수 상승률  
이 1년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  
록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8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  
르면 지난달 수입물량지수는  
124.58(2010=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 상승했다.  
2014년 12월(10.9%) 이후 최대 증  
가폭이다.

화학제품과 일반기계 등이 수입  
물량지수의 상승세를 견인했다.

화학제품은 의약품과 기초화  
학제품을 중심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9% 늘었고 일반기계는  
22.7% 상승, 지난해 10월부터 감  
소세를 지속하다가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처럼 한은 물가통계팀 과정은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용 기계를 중심으로 일반기계 부  
문이 큰 폭으로 상승 전환한 것이  
전체 수입물량을 올리는 데 큰 영  
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수입금액지수(98.77)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상승, 2014년  
9월(6.6%) 이후 1년11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수출물량지수는 131.15로 3.9%  
상승했지만 수출금액지수(105.31)  
는 저유가의 영향으로 1.4% 하락  
했다.

수출금액지수의 지난해 동기 대  
비 등락폭은 지난해 1월부터 1년8  
개월째 내림세다.

다만 유가의 하락세가 완만해지  
면서 수출금액지수의 하락폭은  
2014년12월(3.9%)이후 1년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출물량지수를 부문별로 보면  
석탄 및 석유제품이 19.9% 감소했  
지만 화학제품(21.8%), 전기 및 전  
자기(5.8%) 등이 증가했다.

수출금액지수(98.77)는 수출가격  
(-5.1%)에 비해 수입가격(-6.3%)  
이 더 크게 내린 여파로 1.3% 상  
승했다. 수출물량지수와 수출금액지  
수는 수출물량지수와 수출금액지수  
가 동반 상승해 5.2% 증가  
했다. /뉴시스

## 빚 갚을 능력 없는 서민, 원금 최대 90% 감면

'서민·취약계층 채무조정안 개선방안' 발표... 성실 상환자 금리 30%인하

빚 갚을 능력을 잃은 서민·취약계  
층 채무자에게 최대 90%의 원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긴급 생활 자금이 필요한 성실  
채무 상환자에게는 30% 인하된 금리  
로 유동성을 제공하며, 이들에게 제  
공된 소액신용카드 한도를 100만원까  
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  
된 '서민·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  
을 위한 채무조정안 개선방안'을 발  
표한 뒤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을 계  
기로 채무의 골때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일반 채무자 중 사실  
상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게 최  
대 90%의 원금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기초수급자나 중  
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객관  
적 기준을 가진 취약계층에게만 이를  
적용해 왔다.

또 약정금액의 75%를 성실히 갚았  
지만 질병 등으로 잔여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잔여채무를 면  
제해 준다.

성실 채무 상환자에 대한 금융 혜택  
도 제공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취약계층의 금융소  
비자 중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결정  
된 금리의 70%만 적용해 이자부담을  
낮춰준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중위소득 50%인  
채무자 중 성실상환자에게는 일자리  
를 알선해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 준다.

성실상환자의 소액신용카드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해 경제  
활동을 지원한다. 연체가 없다면 신  
용등급도 향상된다.

서울보증보험은 금융기관에 연체된  
채무가 있는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  
인 등에 대한 보증서 발급도 지원한  
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  
성실 상환자 7만7000명 ▲상환능력  
결여 채무자 7만1000명 등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별도의 법령 개정  
이 필요 없는 만큼 운영규정 개정 등  
기관별 내부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세  
부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대형 보험대리점에 '상품비교설명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500명 이상의 설계사가 소속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상품비교설명제  
도'가 도입된다.

또 대형 대리점에만 적용됐던 영업  
보증금제도 및 회계장부 관리 등의  
업무기준이 100명 이상인 보험대리점  
에도 확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보험계약자의 상  
품 선택권 제고 등 소비자 보호 강화  
를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500명 이상의 대형 대리점은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하기 전, 유사한  
보험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한 뒤 고  
객에게 '비교 설명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또 모집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진행해 표준상품  
설명대본에 따라 내용을 제대로 설명  
했는지 등의 확인절차도 거친다.  
대형 대리점에는 ▲계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 및 물적시설 구비 ▲

준법감시인 운용 ▲경영지표·불완전  
판매비율 등 추가 공시 의무 등의 업  
무도 추가된다.

소속 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대리점  
의 규제도 강화된다.

이들에게는 500인 이상의 대형 대리  
점에 적용됐던 ▲보험모집 자료 및  
보험상품 광고상 '보험대리점' 표시  
▲회계장부 작성·관리·보관 ▲영업  
보증금 제도(대리점 1억원·법인대리  
점 3억원)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감독규정개정에 맞  
춰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법인 보험  
대리점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상  
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 때 부당지원을 요구하거나 받는  
대리점이 발견되면 곧바로 현장감사  
를 실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모집질서개선추진  
위원회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라  
며 "시장 중심의 모집질서 개선방안  
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참  
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